

고등교육 국제화의 개념과 동기에 관한 비교연구*

최 준 규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요 약〉

이 연구는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국제화의 개념과 동기를 고찰하고 2000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 도구는 2000년도 조사 때와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국내 4년제 대학 10개교에서 응답자들이 대학 내 역할(학생, 교수, 직원), 전공분야(공학, 자연, 사회과학, 상경 계열), 그리고 대학의 규모(대규모, 중소규모) 등 문화적 특성을 대표하도록 의도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 결과, 우선 대학의 국제화는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었고, 이는 세계수준의 교육 시스템 구축과 선진국의 지식과 기술 습득 그리고 외국어 능력 강화의 강조로 나타났다. 둘째, 국제화는 대학과 개인의 현실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셋째, 국제화의 개념과 동기는 대학 구성원의 대학 내 역할, 전공분야, 대학 유형 등 대학 문화에 따라 상이하게 이해되었다.

핵심 주제어: 고등교육, 국제화의 개념, 국제화 동기, 대학문화이론, 합리적선택이론

I. 머리말

지난 20여 년 동안 대학들이 추진하였던 고등교육의 국제화 실적은 그 다양성과 규모 면에서 놀랍다. 오늘날 대학생과 교수들이 연수, 유학, 연구를 위해 다른 나라로 가는 모습은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정보통신의 혁명으로 인해 세계의 우수한 사이트에 쉽게 접속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화상 컨퍼런스 시설을 이용하여 외국인들과 회의를 하며,

* 이 논문은 2005년도 학술진흥재단 신진교수연구지원 (과제번호 B00262)으로 연구됨.

교실과 실험실에서는 외국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교내 식당과 캠퍼스 안에서 외국학생들과 교수들과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정부는 대학의 국제 경쟁력과 위상을 높이도록 대학당국을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있고, 대학의 운영의 주체들 역시 대학의 연건이 허락하는 한 더 많은 학생들을 보내고 더 많은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사실 대학들이 보다 국제화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늘리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하는 양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대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세계 대학들로 하여금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게 만드는 것일까? 여기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첫째 이유는 오늘날 세계의 대학들이 직면한 고등교육 시장화의 요구이다. 오늘날 국제시장 경쟁이 극도로 치열해졌다. 특히 1990년부터 UR협상, WTO와 GATS 출범, FTA 확산으로 이어지는 세계경제 변화 속에서 교육이 일종의 서비스 상품으로 간주되면서 고등교육의 시장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¹⁾ 둘째로, 유능한 국제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다. 극심한 국가 간의 경쟁은 다른 문화와 외국어 그리고 다른 문화의 정신과 사상에까지 지식과 대화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더욱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대학이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어떻게 신속하고 적절하게 호응하느냐가 대학의 질적 수준과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 가고 있다.²⁾ 셋째로, 오늘날 국제화는 대학의 생존전략이 되어가고 있다. 각 대학이 이룬 국제화의 정도는 더욱 극심해져가는 대학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다. 한국의 경우, 정부는 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의 국제화 지표를 차등적 재정지원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더욱이 지방 소재 대학들 경우, 외국학생들은 학생 충원율을 높이고 대학의 재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³⁾ 오늘날 한 대학의 소유하고 있는 국제화 수준(degree of internationalization)은 그 대학이 지닌 교육과 서비스, 구조와 조직, 비전과 발전가능성 차원 뿐 아니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이 되었다.

그렇다면 왜 혹은 무슨 동기로 학생, 교수, 교직원들은 국제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일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국제화란 무엇일까? 다양한 대학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대학의 국제화에 대해 동일한 이해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관념을 지니고 있을까?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다양한 대학의 구성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첫째, 대학의 교수, 학생, 행정직원들은 고등교육의 국제화의 개념과 동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1) 신현석, 한국 고등교육의 시장화와 다양화: 국가, 시장 그리고 대학의 관점에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教育行政學研究』, 제25권 제4호(2007), 286-288쪽; 최영렬, 『FTA와 교육서비스시장』, 『법경제학연구』 제4권 제2호(2007), 216-217쪽.

2) P. Gumpert & B. Sporn, "Adaptation to changing environments: Prescript for management reform", in: J. Smart (ed.), *Handbook of teaching and research* (New York: Agathon Press, 1999), pp.32-33.

3) 신현석, 같은 글, 288쪽.

대학 문화(university cultures)에 따라 국제화가 그들에게 어떻게 상이하게 이해되는가를 비교하였다. 예를 들면, 구성원의 교내 역할(교수, 학생, 직원), 학문분야(공학 계열, 자연 계열, 사회과학계열, 상경 계열), 대학의 유형(대규모 대학과 중소 규모 대학)의 독특한 문화가 어떻게 국제화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두었다. 셋째, 이 연구는 일종의 종단연구(a longitudinal study)로서 2007년에 얻게 된 연구 결과와 연구자 본인이 수행했던 2000년도 연구 결과⁴⁾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지난 7년 동안 변화된 국내 대학 구성원들의 이해 정도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II. 주요 개념 및 이론

1. 국제화 개념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는 흔히 세계화(globalization)와 혼돈하여 사용되어 왔다.⁵⁾ 그러나 이 두 용어는 엄밀하게 구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의) 세계화란 초국가적으로 벌어지는 국제적인 경제, 정치,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교육적 경향을 말하는 것이라면, 국제화란 세계화된 환경 안에서 교육제도, 교육기관 그리고 개인들에 의해 수행되는 정책 및 실천을 말하는 것이다.⁶⁾

그러나 여기서 핵심 개념인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좀 더 명확히 정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고 본다. 왜냐하면 이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는 이 글의 전개와 이해가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고등교육의 국제화란 '대학의 정규 교육적 행위를 통해서 다양한 국제적인 차원들을 대학의 기본적인 기능인 교육, 연구, 봉사 기능 안에 통합

4)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위한 연구로서, 1999-2000 약 2달 동안 국내 10개 대학, 1488명의 학생(1130명), 교수(156명), 직원(202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고등교육 국제화의 의미, 이유, 전략을 조사하였다. 자료는 전수(全數) 설문 조사와 22차례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와 비교를 위해 의도적으로 2000년 연구의 경우와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동일한 대학들을 선정하였다. 단 응답자들은 동일 인물이 아니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졸저 J. G. Choi,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The case of Korean universities*, Dissertation for Ph.D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Washington, D.C., USA, 2003) 참조.

5) 김경, 「국제화와 국내대학의 국제경영학 교육-K대학의 '국제기업환경론' 과목의 사례를 중심으로」, 『상교논총』제18집(1999.8), 194-195쪽; 전숙자, 이인표, 「국제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제3호(1999), 22-52쪽; 이병식,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분석: 실증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한 종합적 접근」, 『교육과학연구』 제37권 제3호 (2006), 282-283쪽; Altbach, P. G. (2004). Glottalization and the university: Myths and realities in an unequal world, in: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Ed.), *The NEA 2005 almanac of higher education* (pp. 63-74). Washington, D.C.: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pp.64-65.

6) Altbach, P. G. & Knight, J. (2007).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Motivations and realitie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1(3 / 4), p.290.

시키는 과정(process)’ 의미한다(밑줄은 강조). 이 정의에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국제화를 개별적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묶음(set of activities)으로 보기 보다는 역동적인 ‘과정’(process)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즉 과정적 접근은 대학의 다양한 국제화 노력을 독립적이거나 배타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대학 전체의 정책과 운영체계 안에서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둘째로 국제화의 노력을 통합(integration)으로 보는 것이다. 통합 개념은 국제화가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 및 행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념 혹은 정신으로 자리매김해야지 이것을 대학의 부수적이고 외연적인 부분으로 이해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또한 통합적 접근은 대학 안에서 국제화가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이 된다.

셋째, 국제적인 차원(international dimensions)이란 다른 나라와 다양한 문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국제화는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선 타문화의 정신적 유산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국제화는 고등교육 기관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인 교육, 연구, 사회봉사 그 자체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제화는 교과과정 중 하나의 과목이거나 수많은 연구의 주제 중 하나이거나 사회를 위한 여러 봉사 중 하나의 형태가 아니고, 대학은 언제나 국제화된 교육, 국제적 관점과 내용을 내포한 연구, 국제적인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⁷⁾

이렇듯 국제화를 통합된 과정(Integrating Process)으로 이해할 때 얻을 수 있는 강점은 대학의 일련의 국제적 활동들을 국제화와 동일시하여 개별적이고 부수적인 국제화 노력을 진행하는 것을 피하고, 반대로 통합적이고 중심적인 교육과정으로서의 국제화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2. 국제화 이론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이론적 가설은 대학문화이론(university culture theory)과 합리적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이다.

7) P. G. Altbach & Peterson, "Internationalize American higher education?" Not exactly. Retrieved March 20, 2006, from www.bc.edu/be_org/avp/cihe/newsletter/News11/text8.html. (1998); W. Cummings, "The institutions [author emphasized] of Education: Compare, compare, compare!"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43(1999), pp. 413-437.; J. Knight & H. De Wit, Internationalization at Canadian universities: the changing landscape (Ottawa, Ontario: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of Canada, 1995), p. 78. S. Pickert & B. Turlington, Internationalizing the undergraduate curriculum: A handbook for campus leaders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92).

1) 대학문화이론

첫째 이론은 B. Clark의 '대학문화(University Culture)이론'⁸⁾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대학 안에 있는 개인 혹은 집단은 자신의 전공 분야, 소속 기관 또는 국가에 따라 다중(多重)의 소속감(multiple memberships)을 갖으며, 자신이 속한 대학 내 집단의 문화 유형에 따라 동일한 교육행위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체험을 한다는 것이다. 대학문화는 대학의 규모, 제도적 유형(공립 혹은 사립), 위치, 역사, 전통, 교육이념 같은 요소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게 되며, 대학 구성원들의 이해와 관점 그리고 행동유형은 자신들이 속한 '대학문화'와 깊은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⁹⁾ 뿐만 아니라 대학문화는 구성원들의 체험, 일상, 헌신에 영향력을 행사한다.¹⁰⁾

예를 들어,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종합대학들은 하위학위(학사, 석사)만을 수여할 수 있는 대학들에 비해 해외대학과의 국제협력, 원격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과 교수의 해외파견(예, 연구년, 교환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¹¹⁾ 이와 비슷하게, 종합대학들과 도시에 있는 대학들은 2년제 소규모 대학들에 비해 보다 많은 국제적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한다.¹²⁾

또한 대학의 국제화 프로그램을 대학의 제도적 유형에 따라 볼 때, 대체로 사립대학들은 국제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에서 국공립(주립)대학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연구중심 주립대학의 경우, 학생들 중 겨우 1%도 채 안 되는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버몬트 주의 Middlebury College와 미네소타 주의 Macalester College와 같은 작은 사립대학의 경우 30% 가량의 학생들이 국제화 프로그램들에 참가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⁴⁾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학문화이론은 대학의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그들이 속한 전공분야

8) B. R. Clark, *Academic culture*(New Haven, Conn.: Higher Education Research Group Institution for Social and Policy Studies Yale University, 1980); B. R. Clark, *Creating entrepreneurial universities: Organizational pathways of transformation* (1st ed.) (New York: Pergamon Press, 1998).

9) A. E. Austin, "Faculty cultures", in: B. R. Clark & G. Neave (eds.), *The encyclopedia of higher education* (vol. 3) (New York: Pergamon, 1992), pp. 1614-1615.

10) A. E. Austin & Z. F. Gamson, *Academic workplace: new demands, heightened tensions*(Washington, D.C.: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Higher Education, 1983), pp. 24-26; L. K. Johnsrud (Ed.), *Understanding the work and career paths of mid-level administrators*(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pp. 159-161.

11) S. Pickert & J. G. Choi, "International activities in teacher education programs", Paper presented at the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Society (CIES), (Washington, D.C., March 12-18, 2001).

12) E. H. El-Khawas, *Campus trends 1995: New directions for academic programs*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95), pp. 45-56.

13) R. D. Lambert, *International studies and the undergraduate*.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89), pp. 218-230.

14)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Open doors 1998-1999: Report on international education exchange* (New York: Author, 1999), pp. 45. 67.

와 학과(부), 그리고 해당 대학의 유형과 전통에 따라 국제화에 대한 개념과 프로그램이 상이하다는 점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2) 합리적선택이론

둘째 이론은 정치학자 M. Levi의 합리적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이다.¹⁵⁾ 이론의 핵심은 간단하다. 즉, 개인이나 조직은 문화적으로 중립적인 존재(culture-free agents)가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관심과 기호에 맞는 것만을 끊임없이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⁶⁾ 합리적선택이론이 주목받는 이유는 개인과 조직의 선택적 행위들은 자신들의 관심과 이해를 극대화하는 일종의 보상체계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Birnbaum에 의하면, 대학은 이해가 다른 다양한 집단들의 정치적 조직라고 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때론 다른 이들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과 화해를 체험한다.¹⁷⁾

이 이론을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적용시켜 보자. 합리적선택이론에 의하면, 교수,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시간과 재화를 투자하여 본인에게 돌아올 유익과 보상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국제화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제화라는 교육적 행위를 함으로써 대학의 수입이 늘고(외국학생 유치, 국제관련 연구기금 유치, 기부금 조성을 통해), 세계수준의 대학이라는 명성을 얻고, 학생과 교수들의 자부심을 키우고, 좋은 신입생을 유치하고, 취업과 승진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는 한 대학 경영진 및 구성원의 진정한 헌신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합리적선택이론은 왜 대학의 구성원들은 대학차원에서 추진하는 국제화 사업에 무관심, 무기력, 반대, 분노 같은 부정적인 측면 역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의 총장의 강한 신념과 헌신으로 국제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교육과정과 연구과제를 촉발하고,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제도를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총장의 노력을 교수들과 학생들, 행정직원들이 거부하고 무시함으로써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실패의 진실을 너무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합리적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원인은 구성원들이 총장의 의지와 헌신적 노력으로부터 얻게 되리라고 예상하는 보상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혹은 오히려 별 대가없이 업무만 늘어나고 일만 복잡하게 되리라는 염려를 하게 될 때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합리적선택이론의 강점은 이론이 거의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는 ‘보편적 성격’에

15) M. Levi, "A model, a method and a map: Rational choice in comparative and historical analysis", In: M. I. Lichbach & A. S. Zuckerman (Eds.), *Comparative Politics: Rationality, culture and structu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p.19-41.

16) *Ibid*, p.24.

17) R. Birnbaum, *Management fads in higher education: Where they come from, what they do, why they fail* (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pp.340-343.

서 비롯한다. 합리적선택이론은 1970년 이후 교육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는데, 유명한 E. Chaffee의 *Three Model of Strategy*(1985)와 Kotler와 Murphy(1981)의 *Strategic Planning for Higher Education* 등이 좋은 예이다.¹⁸⁾

요약하면, 합리적선택이론의 기본적 원칙은 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일정한 문화적 환경의 규범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이익들과 보상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모든 선택(choices)은 논리적으로 합리적(rational)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욕구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Ⅲ. 연구 방법

연구 자료는 2000년도 연구와 마찬가지로 10개의 국내 4년제 종합대학으로부터 수집되었다. 대학의 유형을 살펴보면 국립대 2개교, 사립대 8개교였고,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대학이 6개교, 비(非)서울 4개교였다. 표집대상은 이들 대학교에 재학 혹은 재직 중인 학생, 교수, 직원으로 총 1,469명이었다. 조사는 2007년 10월부터 12월에 수행되었다.

교수와 학생 응답자들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들이 속해 있던 다양한 유형의 대학, 학과, 직위, 연령, 성별에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모든 유형에 있어 응답자 동수(同數)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조사의 타당도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응답자를 확보하였다. 한편 2000년도 연구 응답자들과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표 1〉 참조).

조사 도구는 2000년도 조사와 같은 것을 사용하였다. 조사 도구는 권위를 인정받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질문들을 발췌하여 구성함으로써 설문의 신뢰도를 담보하였다.¹⁹⁾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 분야의 권위자 2명

18) E. E. Chaffee, "Three models of strategy",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1985), pp. 89-98.; P. Kotler, & P. Murphy, Strategic planning for higher educatio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2(September / October, 1981), pp.155-172.

19) B. Burn, *Federal funding for international studies: Does it help? Does it matter?*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ion Administration, 1999); F. M. Hayward & L. M. Siaya, *Public experience, attitudes, and knowledge: A report on two national surveys about international education*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2000); F. Klassen, D. Imig, & J. Yff, *The internationalization dimension of American teacher education: A survey of internationalization programs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for Teacher Education, 1972); M. van der Wende, "Internationalization of curriculum in higher education: Synthesis report" Paper presented at the OECD/CERI seminar of NUFFIC (Hague, The Netherlands, 1995).

에게 항목별로 검토를 의뢰하여 부분 수정을 하였다. 이 설문을 위해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응답자 특성

		2007		2000	
특 성		n	%	n	%
성별	남	701	47.7	669	45.0
	여	768	52.3	815	54.8
지위	학생	1102	75.0	1130	75.9
	교수	141	9.6	156	10.5
	직원	213	14.5	202	13.6
전공분야 (학생)	공학계열	333	30.2	348	30.8
	자연계열	251	22.8	206	18.2
	경상계열	243	22.1	228	20.2
	사회과학계열	232	21.1	228	20.2
	기타	96	8.7	119	10.5
전공분야 (교수)	공학계열	44	31.2	42	26.9
	자연계열	43	30.5	42	26.9
	경상계열	30	21.3	27	17.3
	사회과학계열	25	17.7	19	12.2
	기타	1	0.1	26	16.7
소속 (학생)	학부	699	63.4	812	71.9
	대학원	422	38.3	312	25.7
직 위 (교수)	시간강사	0	0	5	3.2
	전임강사	11	7.8	14	9.0
	조교수	34	24.1	28	17.9
	부교수	45	31.9	47	30.1
	정교수	47	33.3	60	38.5
	기타	4	0.2	2	1.3
국제관련 (직원)	‘그렇다’	56	26.3	47	23.4
	‘아니다’	140	65.7	149	74.1

수집한 자료는 빈도조사(frequencies)와 카이제곱 평정(chi-square test)을 활용해 분석을 하였다. 여기서 카이제곱 평정(여기서는 Pearson's Chi-square)을 사용한 까닭은 본 연구 자료가 본질적으로 명명척도(nominal scale)와 서열척도(ordinal scale)이기 때문이다. Pearson's Chi-square test는 특별한 자료의 분포유형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자료의 20% 이상이 최소한 5(n)를 넘어야 하며, 항목의 n값이 동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²⁰⁾

여기서는 일반적 빈도조사를 통해 각 문항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관찰한 뒤, 필요에 따라 카이제곱 평정을 대학의 문화(학문분야와 대학의 유형)와 교내 역할(행정직원, 교수, 학생)에 따라 분류하여 이들 독립 변수들이 응답자들의 판단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 결과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각 부분은 연구의 중요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어떤 국제적 차원 혹은 측면이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국제화의 개념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를 조사한 것이다. 둘째 부분은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국제화의 동기에 관한 것을 정리하였다.

1. 국제화의 주요 요소

설문지의 13번 문항은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상위 3개를 골라 순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문제였다. 질문은 “귀하의 생각에, 다음 중 어떤 것이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정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까?”이었다. 결과는 <표 1>에 요약해 놓았다.

고등교육 국제화의 개념을 규정하는 요소로서 응답자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를 얻은 항목은 ‘세계 수준의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응답자 중 61.2%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국제화의 요소로는 ‘국제화된 교육과정’으로 44.7%의 지지를 얻었고, 뒤를 이어 ‘해외 교환·연수 프로그램의 확충’(31.0%), ‘국제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 교육’(29.3%)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특징적인 점은 우선 2000년 조사에서 가장 적은 지지를 얻은 항목들 가운데 ‘외국어로 진행되는 수업 확대’(20.1%)를 제외한, ‘외국대학과 협정체결 확대’(8.2%), ‘국제화를 표명한 대학이념 및 비전 선포’(13.5%), ‘외국교수와 학생 유치’(15.1%) 등은 이번 조사에서 여전히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항목들이 여전히 우리 대학들이 심혈을 기울여 시행하고 있는 국제화 사업의 핵심적인 프로그램들이란 점이다. 말하자면 국내 대학인들은 이런 국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운영 또는 참여하면서도, 그들 자신은 이것이 국제화를 정의할 수 있는 핵심 요소들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20) SPSS, Inc, *Manuals: SPSS for windows* (New York: LEAD Technologies, Inc., 2000), p. 198.

〈표 1〉 국제화의 개념 (복수응답)

요 소	① 2007년		② 2000년		①-②
	n	%	n	%	%
세계수준의 교육시스템 구축	899	61.2	886	59.5	+1.7
국제화된 교육과정 개발	657	44.7	442	29.7	+15.0
교환·연수 프로그램의 확대	456	31.0	693	46.6	-15.6
국제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재 양성	431	29.3	548	36.8	-7.5
외국인과 함께 공부하고 일할 기회 확대	345	30.1	401	26.9	-3.2
외국어로 진행하는 수업 확대	326	22.2	185	12.4	+9.8
대학 구성원의 타문화 이해 증진	254	17.3	406	27.3	-10.0
외국교수와 학생 유치	222	15.1	226	15.2	-0.1
국제화를 표명한 대학이념 및 비전 선포	198	13.5	135	9.1	+4.4
대학 구성원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	175	11.9	337	22.6	-10.7
외국대학과 협정체결 확대	120	8.2	171	11.5	-3.3

Note. 1. n(%) 은 1,2,3 순위 응답의 합.

2. 순위를 매기지 않은 응답은 모두 1순위로 인정함.

또 2000년 조사와 비교할 때 특징적인 사항은 2007년 조사에서 국제화된 교육과정 개발(+3.2), 외국어로 진행하는 수업(+15.0%)과 외국어로 진행하는 수업 확대(+9.8%), 국제화를 표명한 대학이념 및 비전 선포(+4.4) 등이 지지율 상승을 보인 반면에, 교환·연수 프로그램 확대(-15.6%), 대학 구성원의 타문화 이해 증진(-10.0%), 대학 구성원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10.7%) 등은 큰 폭 하락을 보였다.

한편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상위 항목들은 다양한 응답자 그룹에서 고른 지지를 얻었다. 예를 들면 ‘세계 수준의 교육 시스템 구축’은 행정직원(60%), 교수(67%), 학생(56%) 그룹에서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선택되었고, 두 번째 상위 항목인 ‘국제화된 교육과정’ 역시 행정직원(42%), 교수(44%), 학생(48%)에게서 고른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사실은 상위 항목에 대해 나타난 구성원들 지지율의 일관성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교내 집단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세계 수준의 교육 시스템 구축’ 항목에 대해 가장 높은 지지를 보인 그룹은 교수(67%)이며, 다른 집단인 학생 그룹(56%)이나 행정직원 그룹(60%)과는 만은 차이를 나타냈다. 이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미하였다($\chi^2=9.841$, $df=2$, $p<.01$).

마찬가지로, 집단 간 발생하는 의식의 차이는 다른 전공 분야에 속해 있는 응답자들 안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세계 수준의 교육 시스템 구축’ 항목을 가장 열성적으로 지지한 학생들은 자연과학 계열(66%)과 공학 계열(63%)이었고, 반면에 사회과학 계열(48%)과 상경 계열(56%)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였다. 전공 간의 이 차이 역시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미하였다($\chi^2=13.765$, $df=3$, $p<.01$).

또한 응답자가 속해 있는 대학의 규모 역시 중요한 독립 변수로 작용했다. 위의 항목에 대해서 재적 25,000명 이상인 대규모 대학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응답(69%)은 중소 규모 대학의 응답(53%)에 비해 보다 긍정적이었고($\chi^2=29.621$, $df=1$, $p<.01$), 한편 국립 대학에 속한 응답자(67%)들이 사립대학에 속한 응답자(55%)에 비해 이 항목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chi^2=5.122$, $df=1$, $p<.01$).

이처럼 국내 대학 구성원들은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세계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해외 교환·연수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국제화 요소들 가운데 국제 교육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해외 연수 및 교환, 외국어로 하는 교육, 외국어 강의 같은 소프트웨어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국외의 대학 구성원들은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대체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교환·연수 프로그램, 교과과정, 외국인 접촉, 외국인 학생 및 교수 영입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²¹⁾ 반면에 이번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사항은, 우리 응답자들에게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던 ‘세계 수준의 교육 시스템 구축’이 외국의 사례에서 한 번도 중요하게 취급된 적이 없는 항목이라는 점이다. 캐나다의 국제교육 전문가인 Jane Knight의 1993년과 1999년 설문 조사를 보면, 캐나다 대학의 구성원들은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 항목은 그녀의 1993년 설문에서는 9개 항목 중 8위, 1999년엔 10개 항목 중 6위로 나타났다.²²⁾

그렇다면 왜 한국인들과 캐나다인들은 이런 차이를 보였을까? Cummings는 『Asian human resource approach』(1995)라는 논문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의 국제화 정책은 서구(西歐) ‘따라잡기 전략(catch-up strategy)’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²³⁾ 즉, 아시아 국가들은 대학들의 국제 교류와 활동을 통해 선진국의 기술과 지식을 수입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학문적·경제적 발전을 꾀하는 방편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Ebuchi는 일본 대학들이 추진하는 국제화는 교육과 연구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조기에 세계수준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이라고 주장했다.²⁴⁾

21) M. Harari,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curriculum", In: C. B. Klasek (Ed.), *Bridges to the future: Strategies for internationalizing higher education* (Carbondale, IL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ion Administrators (AIEA), 1992), pp. 52-79; J. Knight, *Progress & promise: The AUCC report on internationalization at Canadian universities*(Ottawa, Canada: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of Canada, 2000).

22) J. Knight, *Internationalization at Canadian universities: the changing landscape*, (Ottawa, Ontario: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of Canada, 1995).; Knight (2000). *op. cit.*

23) W. Cummings, "The Asian human resource approach in global perspective", *Oxford Review of Education*, 21(1995), pp.67-81.

24) K. Ebuchi, "Curriculum development for internationalization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Paper

2. 국제화의 동기

그렇다면 대학의 국제화를 시도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대학의 구성원 개인이 국제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두 개의 질문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귀 대학이 더욱 국제화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이었고, 다른 하나는 “당신의 대학이 더욱 국제화될 때 당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은 대학 조직의 수준(institutional level)과 대학 구성원의 개인 수준(personal level)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같은 상황에 대한 상이한 이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

1) 조직 수준의 국제화 동기

위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이 국제화를 수행하는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응답을 얻은 항목은 ‘국제 지식과 외국어 능력은 개인의 직업적 성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77.2%)였고,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얻은 것은 ‘현 사회가 국제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65.6%)이었다. 그 뒤를 이어 ‘대학은 세계수준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60.0%), ‘대학의 현실적 혜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57.5%)가 상위에 위치했다. 반면에, 적은 응답률을 얻은 항목들은 ‘우리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8.3%), ‘타문화 이해가 커지고 세계평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8.0%)이었다.

<표 2> 국제화의 동기, 조직 수준 (복수응답)

대학이 국제화를 추진하는 동기	① 2007		② 2000		①-②
	n	%	n	%	%
국제적 지식과 외국어 능력은 개인의 직업적 성공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1134	77.2	1,112	74.7	+3.5
현사회가 국제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재를 요구하기 때문에	963	65.6	1,184	79.6	-13.0
대학은 세계수준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878	60.0	686	46.1	+13.9
대학의 현실적 혜택(정부지원, 대학명성, 신입생 유치, 충원률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845	57.5	167	11.2	+46.3
한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432	29.4	684	46.0	-16.6
한국인의 국제적 감각과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필요하기 때문에	223	15.2	206	13.8	+1.4
우리 문화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122	8.3	153	10.3	-2.0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세계평화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117	8.0	104	7.0	-1.0

presented at the Fukuoka Seminar on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Fukuoka, Japan (1996, January). pp.5-6.

200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이번 조사에서 특징적인 것으로는 우선, ‘대학은 세계수준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대학의 책무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46%에서 60%로 14% 포인트 상승하였다. 특히 국제화가 ‘대학에게 현실적 혜택’을 제공한다고 믿는 응답자들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였다. 즉, 이 항목에 대해 2000년 응답자들 중 겨우 11%만이 긍정을 한 반면,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 중 무려 58%가 동의를 표시 하였다. 이는 오늘날 국제화 지표(외국어강좌 비율, 외국교수 비율, 외국학생 비율 등)를 정부의 대학지원금 배분에 중요한 기준으로 강조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한편 대학 내 다른 집단들은 같은 항목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대학은 세계수준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라는 항목에 대해 학생들은 전공에 따라 다른 응답 유형을 보였는데, 공학 계열(66%)과 자연과학 계열(67%)에 속한 학생들은 경영학 계열(37%)이나 사회과학 계열(47%)에 속한 학생들에 비해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다($\chi^2=24.453$, $df=3$, $p<.01$). 반면 국제화가 해당 대학에 ‘현실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경영학 계열(64%)과 사회과학 계열(61%) 학생들이 자연과학 계열(23%)과 공학 계열(40%)의 학생들에 비해 높은 빈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였다($\chi^2=19.332$, $df=3$, $p<.01$). 이는 2000년 조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대학의 규모 역시 중요한 독립변수로 작용하였다. 중소 규모(재적 학생 25,000 미만) 대학의 응답자들은 그들의 대규모(재적 학생 25,000 이상) 대학의 응답자들과 비교했을 때, ‘국제 지식과 외국어 능력은 개인의 직업적 성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라는 항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87%: 67%)을 보였다. 반대로 ‘대학의 현실적 혜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라는 항목에 대해 대규모 대학의 구성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66%: 60%)를 표시하였다. 통계학적으로 이 차이는 매우 유의하여, 두 항목에 대해 두 집단의 차이는 모두 $p<.01$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현 사회가 국제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항목의 예를 든다면, 앞서 언급했던 Knight의 1999년 조사에서 응답자 중 73%가 이 항목을 최우선적 동기로 선택하였다.²⁵⁾ 또한 2000년에 실시되었던 미국, 중국, 칠레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비교연구에도 97%의 응답자들이 이 항목을 지지했다.²⁶⁾ 한편 외국어와 국제 지식에 대한 관심이 국제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동기로 여기는 점과 이런 능력이 직업적 유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에 높은 동의를 표시하는 것 역시 다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²⁷⁾

25) Knight, (2000), *op. cit.*

26) Pickert, *op. cit.*

27) P. Altbach, *Private higher education: Themes and varia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Retrieved

2) 개인 수준의 국제화 동기

대학의 주체인 학생, 교수, 교직원들은 과연 대학의 국제화를 통해 어떤 혜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 개인이 기대하는 보상은 그의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된다.²⁸⁾

〈표 3〉에 제시된 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의 국제화가 진척될수록 많은 응답자들(60.0%)은 취업, 인센티브(보상), 승진 등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또 선진지식과 기술(advanced knowledge and skills)을 습득하리라는 기대(59.2%) 또한 비슷한 동의율을 얻었다. 중간정도의 지지를 받은 항목들은 외국기업 혹은 외국에서 일할 기회(29.4%), 외국인과 함께 일할 기회(27.3%), 외국어 능력 향상(27.2%), 연수나 유학 준비(26.4%)들이었다. 가장 낮은 동의를 얻은 항목들은 세계시민의식 고양(8.0%), 국제회의 및 컨퍼런스 참여(9.1%), 전통문화 이해와 민족 정체성 이해 향상(11.2%) 등이었다.

〈표 3〉 개인수준의 국제화 동기 (복수응답)

대학의 국제화로 얻는 보상 기대	① 2007		② 2000		①-②
	n	%	n	%	%
취업, 보상, 승진에 유리함	877	60.0	618	41.5	+18.5
선진 지식과 기술 습득에 도움됨	870	59.2	770	51.7	+7.4
외국기업 혹은 외국에서 일할 기회에 유리함	433	29.4	299	20.1	+9.3
외국인과 함께 일할 기회 많음	401	27.3	334	22.4	+4.9
외국어 능력 향상에 유리함	399	27.2	624	41.9	-14.7
연수나 유학 준비에 유리함	389	26.4	360	24.2	+2.2
타문화 이해가 향상됨	355	24.2	559	37.6	-13.4
외국서적 및 저널을 많이 읽는데 도움	201	13.7	210	14.1	-0.4
우리 전통문화 및 민족 정체성 이해에 도움	165	11.2	134	9.0	+2.2
국제회의 및 컨퍼런스에 보다 자주 참여함	134	9.1	129	8.7	+0.4
세계시민의식이 고양됨	117	8.0	219	14.7	-6.7

200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대학의 국제화 추진 정도를 개인적 혜택(취업, 보상, 승진)과 연결시켜 보려는 성향이 2000년 41.7%에서 2007년 60.0%로 무려 18.5%나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 외국기업과 외국에서 일하는 것과 선진 지식과 기술 습득에 대한 기대감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각각 9.3%, 7.4% 상승했다. 반면에 큰 폭으로 지지

Jan. 12, 2006, from www.bc.edu/be_org/avp/cihe/newsletter/News10/text1.html. (1998a).; F. M. Hayward, *Internationalization of U.S. higher education: Preliminary status report 2000*.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2000).; G. C. Lim, *Toward Building Global Collaboration for Education*. (Lansing, Michigan: Program on Humanistic Globaliz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1997).

28) 제임스 C 헌터, 『서번트리더십』 (서울: 시대의창, 2005), 20쪽.

을 하락을 보인 항목들은 외국어 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와 타문화 이해에 관한 기대로 2000년 조사 때보다 각각 14.7%, 13.4% 떨어졌다.

국제화에 대한 개인적 기대 역시 응답자가 속한 집단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교수집단은 '선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이라는 항목에 가장 높은 83%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학생 응답자의 51%와 행정직원의 26%만이 그렇다고 생각하여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였다($\chi^2=55.448$, $df=2$, $p<.01$). 한편 취업, 보상, 승진 등 개인적 혜택에 대한 응답도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대체로 학생 응답자들은 매우 높은 동의율(71%)을 보여 준 항목으로 교수(61%)와 직원(28%)의 응답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chi^2=29.648$, $df=2$, $p<.01$). 그 외에 학생 응답자들은 '외국어 능력 향상'(46%) 항목에 대해 교수 집단(11%)이나 직원 집단(23%)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와 반대로, 직원들은 국제화가 다른 문화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항목에 대해 45%의 동의율을 보인 반면 학생집단(14%)이나 교수집단(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표현했다.

응답자의 전공 유형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대학의 국제화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 사회과학 계열(35%)과 상경 계열(31%) 학생들은, 자연과학 계열(15%)과 공학 계열(11%) 학생들과 많은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 항목에 대한 전공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한 수준이었다($\chi^2=27.673$, $df=3$, $p<.01$). 반대로 선진 지식과 기술 습득에 관한 기대감은 자연 계열(67%)과 공학 계열(63%) 학생들이 사회과학 계열(43%), 상경 계열(38%) 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43.876$, $df=3$, $p<.01$).

V. 결 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대학의 구성원들은 국제화를 대체로 세계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국제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환·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국제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응답자들은 외국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국제화를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한 대학의 교육이념과 정책 안에 농축시키는 조직 활동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은 대학이 국제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오늘날 더 많은 국제적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의 직업적 성공에 중요한 요소인 국제적 지식과 외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는 실용적인 동기들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국제화는 대학이 정부지원금 배분과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그리고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대학의 현실적 이해관계와도 맞닿아 있었다. 한편 대학의 구성원들은 대학의 국제화가 개인의 취업과 승진 등 직업적 혜택에 도움을 주고, 외국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국제 기업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국제화의 개념과 동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 대학의 국제화는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는 반면, 문화적 관점이나 조직적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세계수준의 교육 시스템 구축과 선진국의 지식과 기술 습득 그리고 외국어 능력 강화의 강조에서 나타난다. 둘째, 국제화는 대학과 개인의 현실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셋째, 국제화의 개념과 동기는 대학 구성원의 교내 역할(학생, 교수, 행정직원), 전공 유형, 그리고 대학의 규모(대규모 vs. 중소규모) 같은 다양한 대학문화에 따라 상이하게 이해된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화 실행의 핵심에는 대학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국제화 정책결정과 실행의 중요성이 자리하고 있다. 즉, 대학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소속, 전공, 대학의 규모 같은 ‘대학 문화(university cultures)’에 따라 매우 다른 인식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때 다양한 대학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며, 동시에 이 문화적 차이들을 극복하고 통합할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경, 「국제화와 국내대학의 국제경영학 교육-K대학의 ‘국제기업환경론’ 과목의 사례를 중심으로」, 『상교논총』 제18집(1999.8), 198-206쪽.
- 신현석, 「한국 고등교육의 시장화와 다양화: 국가, 시장 그리고 대학의 관점에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教育行政學研究』, 제25권 제4호(2007), 285-314쪽.
- 이병식,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분석: 실증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한 종합적 접근」, 『교육과 학연구』 제37권 제3호(2006), 279-298쪽.
- 전숙자, 이인표, 「국제화 교육의 현황과 과제」 제3호(1999), 22-52쪽.
- 최영렬, 「FTA와 교육서비스시장」, 『법경제학연구』 제4권 제2호(2007), 215-234쪽.
- Altbach, P. (1998). *Private higher education: Themes and varia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Retrieved Feb 26, 2001, from www.bc.edu/be_org/avp/cihe/newsletter/News10/text1.html
- Altbach, P. G. (2004). Globalization and the university: Myths and realities in an unequal world. in: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Ed.), *The NEA 2005 almanac of higher education* (pp. 63-74). Washington, D.C.: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 Altbach, P. G. & Peterson, P. M. (1998). *Internationalize American higher education? Not exactly*. Retrieved Feb 26, 2001, from www.bc.edu/be_org/avp/cihe/newsletter/News11/text8.html
- Altbach, P. G. & Knight, J. (2007).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Motivations and realitie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1(3/4), pp.290-305.
- Austin, A. E., Faculty cultures. In: B. R. Clark & G. Neave (Eds.), *The encyclopedia of higher education* (Vol. 3, pp. 1614-1623). (New York: Pergamon, 1992).
- Austin, A. E., & Gamson, Z. F. *Academic workplace: new demands, heightened tensions*. (Washington, D.C.: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Higher Education, 1983).
- Chaffee, E. E., Three models of strategy.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1985). pp.89-98.
- J. G. Choi,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The case of Korean universities*, Dissertation for Ph.D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Washington, D.C., 2003).
- Clark, B. R., *Academic culture*. (New Haven, Conn.: Higher Education Research Group Institution for Social and Policy Studies Yale University, 1980).
- Clark, B. R., *Creating entrepreneurial universities: organizational pathways of transformation* (1st ed.). (New York: Pergamon Press, 1998).
- Cummings, W., The Asian human resource approach in global perspective. *Oxford Review of Education*, 21(1995), pp.67-81.
- Cummings, W., The institutionS of Education: Compare, compare, compare!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43(1999), pp.413-437.
- Ebuchi, K., "Curriculum development for internationalization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 (Paper presented at the Fukuoka Seminar on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Fukuoka, Japan, Jan. 1996).
- El-Khawas, E. H., *Campus trends 1995: New directions for academic programs*.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95).
- Gumport, P. J. & Sporn, B. "Adaptation to changing environments: Prescriptions for management reform," In: J. Smart (Ed.), *Handbook of teaching and research*. (New York: Agathon Press, 1999).
- Guttek, G. L., *American education in a global society: Internationalizing teacher education*. (White Plains, N.Y.: Longman, 1993).
- Harari, M.,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curriculum," In: C. B. Klasek (Ed.), *Bridges to the future: Strategies for internationalizing higher education* (pp. 52-79) (Carbondale, ILL: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ion Administrators, 1992).
- Hayward, F. M., *Ace survey of international attitudes and knowledge(Statue Report)*.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Center for Institutional and International Initiatives, 2000).
- Hayward, F. M., & Siaya, L. M., *Public experience, attitudes, and knowledge: A report on two national surveys about international education*.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2001).
-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Open doors 1998-1999: Report on international education exchange*. (New York: Author, 2000).
- Johnsrud, L. & Vicki J., (Ed.) *Understanding the work and career paths of midlevel administrators*. (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 Knight, J., *Internationalization at Canadian universities: the changing landscape*. (Ottawa, Ontario: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of Canada, 1995).
- Knight, J., *Progress & promise: The AUCC report on internationalization at Canadian universities*. (Ottawa, Canada: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of Canada, 2000).
- Knight, J. & De Wit, H., "Strategies for internationalisation of higher education: Historical and conceptual perspectives," In: H. d. Wit (Ed.), *Strategies for internationalisation of higher education-A Comparative study of Australia, Canada,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msterdam, Netherlands: Europ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ion, 1995).
- Kotler, P., & Murphy, P. (1981). Strategic planning for higher educatio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2(September/October).
- Lambert, R. D., *International studies and the undergraduate*.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89).
- Levi, M., "A model, a method and a map: Rational choice in comparative and historical analysis," In: M. I. Lichbach & A. S. Zuckerman (Eds.), *Comparative Politics: Rationality, culture and structure(pp. 19-4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Lim, G. C., *Toward Building Global Collaboration for Education* (Lansing, Michigan: Program on Humanistic Globaliz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1997).
- Mestenhauser, J. A., International education on the verge. *International Educator*, (2000, Spring), pp. 68-76.
- Mestenhauser, J. A., "Portraits of an international curriculum: An uncommon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In: J. A. Mestenhauser & B. J. Ellingboe (Eds.), *Reforming the higher education curriculum: Internationalizing the campus* (pp. 3-39). (Phoenix, AZ: The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nd the Oryx Press, 1998).
- Pickert, S. & Choi, J. G., "International activities in teacher education programs," Paper presented at the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Society (2001, March 12-18, Washington, D.C.).
- Pickert, S. & Turlington, B., *Internationalizing the undergraduate curriculum: A handbook for campus leaders*. (Washington, D. 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1992).
- SPSS, Inc, *Manuals: SPSS for windows* (New York: LEAD Technologies, Inc., 2000).

원고접수: 2008년 10월 24일 1차심사: 11월 30일 게재승인일: 12월 4일

연구자 소개: 최준규

- ① 전공: 종교학, 교육학/소속: 가톨릭대학교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가톨릭교육, 대학행정, 국제교육
 - ③ 주요논저: 〈가톨릭학교교사의 영성〉, 〈가톨릭대학의 가톨릭 정체성〉, 〈대학의 국제화전략〉, 〈가톨릭의 사제양성 원리와 실제〉
 - ④ E-mail: runnerchoi@catholic.ac.kr
-

Abstract

The Concepts and Rationale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Higher Education: A Comparative Study

Choi, Jun Gui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diverse members of Korean universities in South Korea understand the concept and rationale for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and to compare its results with those of previous study conducted by in 2000 as well. Data were collected from 4 disciplines(Engineering, Natural Science, Business / Economics, and Social Science) at 10 four-year universities in Korea. Questionnaire which were used in 2000 was utilized. The participants represented diverse disciplines and institutions as well as personal backgrounds, such as gender, age, academic rank, and international experience.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1) the respondents conceived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on perspective of internationalized curriculum; (2)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s viewed as rewards or incentives that a university or a person can take rather than a public good; (3) The cultural patterns such as roles, majors, institutional types of universities influenced Koreans' concept and rationale for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Key words: university, internationalization, rationale for internationalization, university culture theory, rational choice theory